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들을 드리워주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편안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든든한 나무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심은 청렴 씨앗을
더욱 아름답게 키워내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정부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
우리 사회 곳곳에 청렴 씨앗을 심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이 의지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갑니다.



2014
03+04



권익 구제의 열쇠!!

행정심판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www.simpan.go.kr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오.

- 행정심판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 청 구 방 법** | • 인터넷 : www.simpan.go.kr • 팩스 : 02-360-3556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우편·방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 소 관 사 항**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03+04 vol.37

발행일 2014년 4월 3일(격월간, 비매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이충호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CONTENTS



● 테마기획 - 권익위가 심는 청렴 씨앗

- 04 테마 스토리 _ 제7차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 08 테마 포커스 _ 201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 12 테마 인포 _ 반부패 청렴정책 지침 주요내용

○ 희망전하기

- 14 국민권의 이야기 _ 학교 당직기사 근로여건 제도개선
- 18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_ 제2회 국민권의 날 기념식
- 22 국민행복제안센터 _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시행

○ 권익더하기

- 24 국민권이 간다 _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피해구제 현장조정회의
- 28 소통의 창 _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
- 30 국민권의 Q&A _ 주요 국민권의 개선사례
- 32 110 행복레시피 _ 민원인의 기쁜 목소리에 더욱 힘을 얻으며

○ 행복나누기

- 34 타박타박 힐링여행 _ 서촌과 북촌을 거닐다
- 38 감성충전소 _ 봄나들이 가족체험
- 40 스포츠 인사이드 _ 미리보는 2014 프로야구
- 42 건강 다이어리 _ 미세먼지, 황사 대처법
- 44 청렴 오디세이 _ 다리미를 든 대통령
- 46 꼭 알아두세요! _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 48 뉴스&피플 _ 이성보 위원장, 청렴정책 홍보 위해 3월 25~29일 방미 외
- 50 행복우체통 _ 독자자연&퀴즈

제7차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선진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귀를 활짝 열다



청렴하고 깨끗한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널리 알리고,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주한 외국 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는 외국기업 CEO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 권익위가 매년 주최하는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2. 반부패 제도에 대한 질문은 물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3. 의료계의 리베이트 생벌제 기준 마련에 대해 답하는 과징금 부패방지부위원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기반, 최고의 반부패 시스템

“한국 정부는 투명한 정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권익위의 부패예방 기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성보 위원장의 자부심이 담긴 차분한 목소리가 간담회장에 울려 퍼진다. 세계 각국의 주한 외국기업 CEO들의 얼굴에는 공감과 환영의 기색이 번진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투명한 정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한국에 대한 UN반부패협약 이행현황 점검에서 명확한 성과로 드러났다. UN반부패협약 점검대상 분야의 거의 대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권익위의 부패예방기능이 성공사례로 선정된 것은 물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를 곧바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위원회 법 제59조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청렴도 높은 나라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수치로도 입증된 결과다.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으로 꼽힌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고, UN이 펴낸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돈만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가 정착된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뜻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기업 CEO들이 권익위의 선진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이다. 불합리한 규제가 없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된 나라는 자연스럽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권익위의 활동 소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선진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단호한 의지를 담은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권익위를 비롯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행위기준이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신설되어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된다는 설명을 들은 외국 기업 CEO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약 19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제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도 포함된 바 있는 규제개혁 등도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함께 소개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개최됐던 간담회에서 나온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기울인 노력과 후속조치도 소개됐다.

제3차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정부계약 전반에 대한 청렴계약제 도입의 경우 권익위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에 국가계약법과 지방정부계약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드디어 지난해 법제화되는 결실을 맺었다. 또 4차 간담회 당시 부패 공직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의도 반영됐다. 현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재취업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지난해 제기된 외국기업 직접입찰 활성화 방안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권익위는 조달청에 외국기업 직접입찰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해킹 문제로 중지되었던 비축물자 국외 입찰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대형 외자구매 입찰공고 안내를 주한해외공관, 해외구매관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기업이 정부조달 입찰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제도개선 권고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의견



4. 선진 반부패 시스템 구축 의지를 밝힌 이성보 위원장
5.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약 50명의 주한 외국기업 CEO들이 참석했다
6. 권익위의 반부패 활동에 외국기업 CEO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을 표시했다
7.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청취에만 머무르지 않고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권고와 후속조치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외국기업 CEO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권익위의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물론, 이성보 위원장까지 적극적으로 외국기업 CEO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하락 원인과 관련해서 이성보 위원장은 “조사 시기와 결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예산을 환수하는 ‘징벌적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리베이트 쌍벌제의 정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질문

에는 박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이 답했다. 박진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공립병원 서베이를 진행하는 등 리베이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한 뒤 “이미 지침 마련 요청을 준비 중이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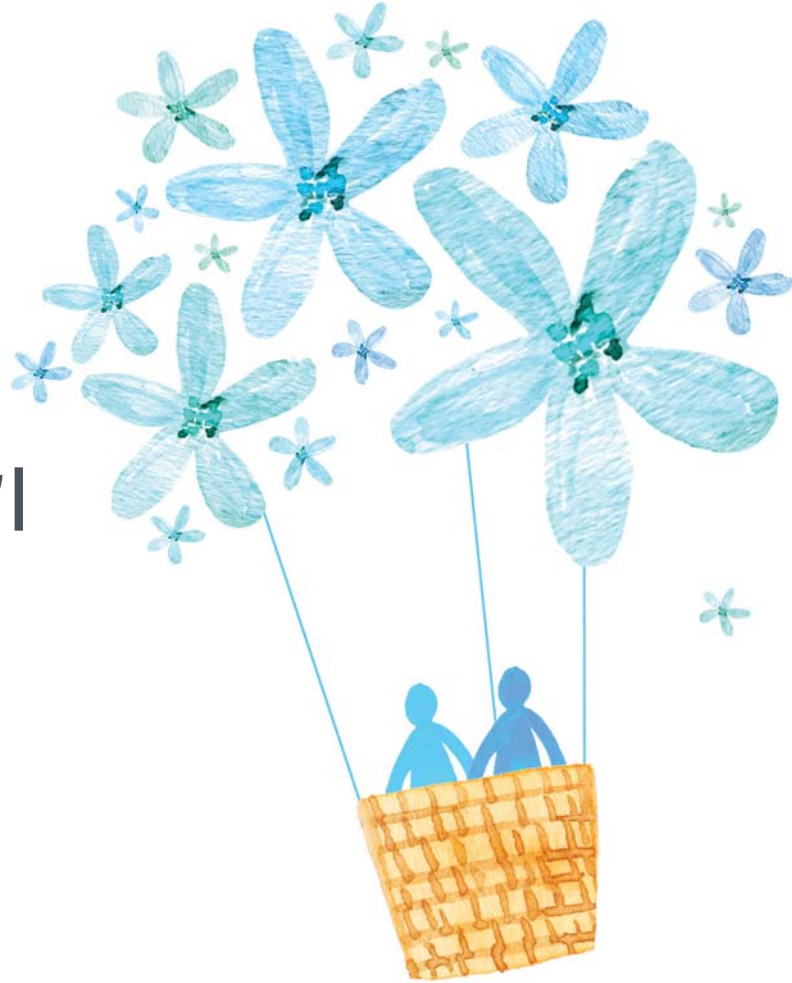
질문과 건의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외국기업 CEO는 “어떠한 법치국가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제도인지, 99% 어גיע 되는 제도인지 권익위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는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창구역할로 자리매김한 이 간담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 권익위가 앞장선다

권익위가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정상화'를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5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201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부패 관행 정상화를 위한 3대 중점 분야를 발표하며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청렴한 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한다

토머스 모어는 '돈이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뿌리 깊은 사회의 부패는 사회 정의를 해치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까지 해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덴마크, 뉴질랜드가 100점 만점 중 91점으로 공동 1위,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 5위 노르웨이, 6위 싱가포르, 7위 스위스, 8위 네덜란드, 호주와 캐나다가 공동 9위이다. 이 순위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위부터 9위까지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선진국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부패인식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즉 부패가 적을수록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2013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55점으로 46위에 머물렀다. 안타까운 부분은 매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39위이던 순위는 2011년 43위, 2012년에는 45위에서 다시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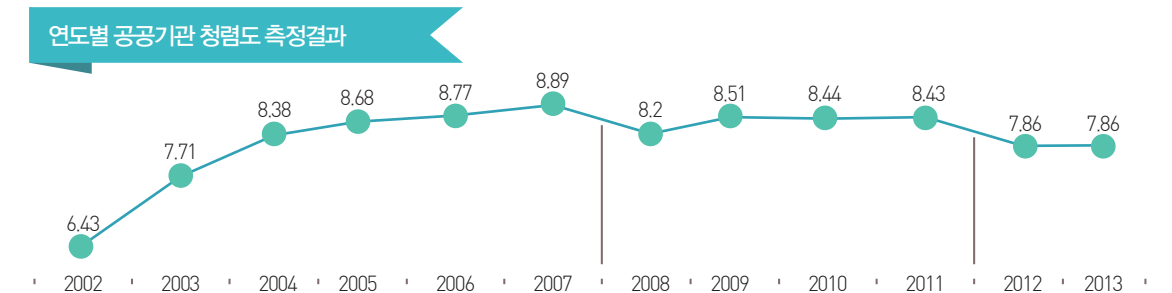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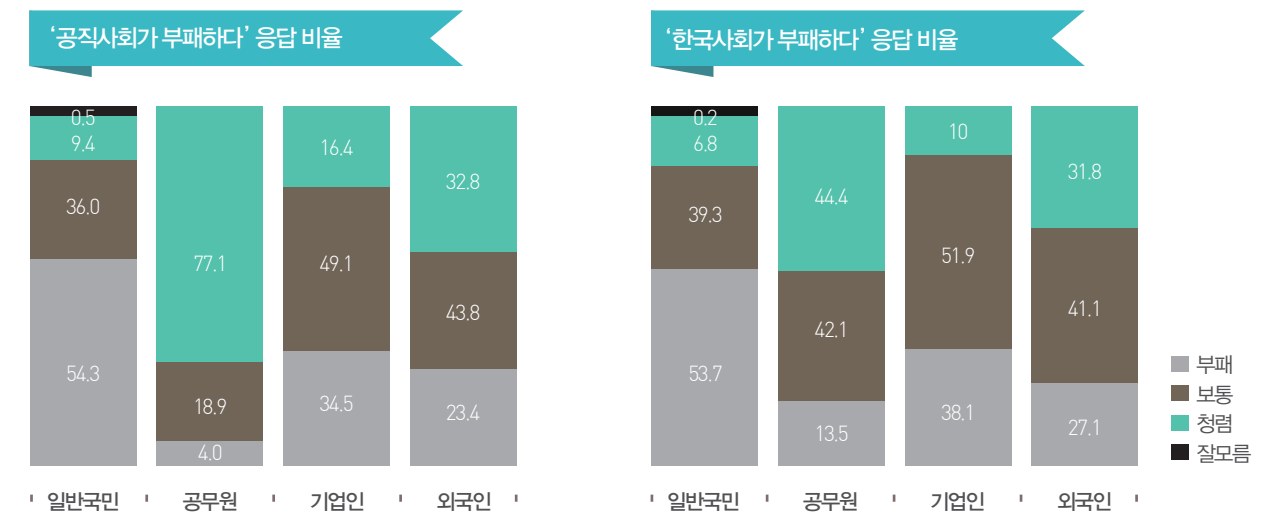
권익위가 실시한 '20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에서도 이런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회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해 일반 국민의 53.7%, 기업인 38.1%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일반국민의 55.2%, 기업인 42.9%, 공무원 42.9%가 '우리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일반 국민의 23.1%는 금품수수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25%가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을, 기업인은 31.3%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은 26.7%가 접대와 향응 수수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 국민과 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청렴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던 반면, 외국인과 공무원은 각각 27.1%, 13.5%가 '부패하다'고 응답해 청렴하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특히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54.3%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단 4%만이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부패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공공기관 청렴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민들이 경험하거

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가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청렴도 측정에 따르면 금품제공,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부패경험은 개선되었지만, 청렴문화·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분은 지난해 7.38점에서 6.82점으로 떨어지고, 조직 내 알선·청탁·압력행사 정도는 8.68점에서 8.44점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은 7.72점에서 7.24점으로 하락한 것이다. 게다가 외부청렴도는 8.09점, 내부청렴도는 7.93점을 기록한 데 비해 정책고객평가는 6.95점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종합청렴도는 7.86점으로 동일하지만, 정책고객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고질적인 공직사회 부패를 혁신하라

이처럼 청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신년사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추진해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대로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적발·처벌 차원의 대응을 넘어 재정누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 개선 활동을 적극





이성보 위원장은 3대 부패 추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선 것이다. 권익위는 「2014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부패로 '국가재정 손실 부패',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선정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권익위는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

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110)'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예산의 허위 · 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 · 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둘째,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공무원에 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가 미비한 공직유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 참석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등록을 하고 있다

관단체들의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제도만 갖추어 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은 철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간다. 셋째,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다. 또 연말에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이 3대 중점분야의 정상화 외에도 권익위는 정부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를 위해 권익위는 선도 기관에는 특화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각급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시책을 발굴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또 부패 정보 분석과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반부패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 청렴교육 확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 · 신뢰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위해 비정상적 부패 관행을 중점 개선하고,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또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보상 체계 구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청렴 수준의 체계적 진단 · 환류를 통한 청렴도 견인을 위해 지방청 · 실국

등 하위조직별 평가를 확대하고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기관별 활동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국민 권익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공직사회, 그 바탕에는 종래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개선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권익위는 모든 공공기관과 협력해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4년도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3대 중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정부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활성화
공공기관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추진전략
권익위와 공공기관 협업, 부패관행 정상화
부패실태의 과학적 분석으로 반부패 활동 확산
반부패 역량을 결집, 국제사회 반부패 인식개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3대 중점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1) 국가재정 누수 차단장치 강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정보 분석·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활용한 복지재정 누수차단 방안 강구, 정부예산의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 2)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정상화
부패행위자 처벌수준 정상화,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관리 강화
- 3) 구조적·고질적 비리분야 개선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국정 현안과제 부패 영향평가 집중 실시, 행동강령 위반 빈발분야 집중 개선

각 기관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부3.0을 통한 반부패 시책 추진 협력 강화

- 1) 협업을 통한 반부패 시책 개발·확산
선도기관, 신규기관에 특화된 반부패 시책 추진, 공동 적용 가능한 반부패 시책 발굴·확산
- 2) 부패정보 분석 및 공동 활용 강화
부패정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책개발, 실태점검 등 반부패 활동 확산 추진

깨끗한 공직사회 문화를 만든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교육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 개선, 민간협력을 통한 분야별 반부패·신뢰문화 확산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절한다 부패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개선

비정상적 부패 관행 중점 개선, 기관 맞춤형 협업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태 점검 강화

정직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활성화

부패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체계 구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

필수 체크! 공직사회 청렴 다이어리

청렴한 세상 만들기, 공직사회가 앞장서요!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익위가 추진해 나갈 반부패·청렴정책 지침의 주요내용을 한 눈에 살펴보자.

더욱 청렴하게, 더욱 믿을 수 있게 청렴 수준의 체계적 진단·환류를 통한 청렴도 견인

지방청·실국 등 하위조직별 평가를 확대하고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 제고,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기관별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학교 당직기사 근로여건 제도개선

밤의 교장

탁. 탁. 탁.

또 그 소리다. 서 노인은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밤 11시다. 일주일 전부터 이 시간만 되면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망치로 벽을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딱딱한 각목으로 뿔 때리는 소리 같기도 하다. 서 노인은 소리가 어디쯤에서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였다. 칠십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얼마 전 건강검진 때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지 않았나. 틀림없이 이 근처 어디다. 안 그래도 당직을 서느라 쪽잠을 자야하는 판에 저 소리 때문에 통 눈을 붙이질 못했다. 오늘은 소리의 정체를 기억코 알아낼 참이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서 노인은 초등학교에서 당직 기사로 일하고 있다. 이 나이에 혼자 당직 근무를 서다 심장마비가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숙직실에서 눈을 감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 렉저럭 잘 해오고 있다.

탁. 탁. 탁.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되고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분명히 27개의 교실문과 4개의 현관문, 교문과 방범셔터까지 분명히 잘 잠갔다. 가끔 취객이나 학생들이 학교 담장을 넘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내려 일부러 이 근처로 올 리는 없다. 아침마다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에게 수상쩍은 소리에 대해 말했더니 대뜸 서운한 소리가 돌아왔다.

“아버지, 신경쇠약이세요.”

망령이 난 노인네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다.

“이제 그만 두시는 게 어떠세요?”

녀석은 참 쉽게도 말한다. 서 노인은 아내와 둘이 살고 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를 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법 생활비를 보태더니 제 살림을 차리고 보니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수족이 움직여줄 때까지는 어떡하든 돈을 벌어야 할 생각이다. 평생 살림에 쪼들려온 아내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연세에 비해서 일이 너무 고되세요.”

아들은 숫제 성화를 해댔다.

야간근무 15시간, 고된 학교 당직기사 업무

서 노인의 출근 시간은 오후 4시 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순찰을 돌고 밤 9시께 늦은 저녁을 먹는다. 밥 먹는 중에도 과제물이나 학용품을 교실에 두고 갔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학교 담을 넘어와 유리창을 깨뜨리는 놈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온다. 그 시간엔 다시 순찰을 돌아야 한다. 교장실과 행정실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마치고 교문 옆 숙직실에 잠시 몸을 눕힌다. 그게 끝이 아니다. 새벽 2~3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오면 다시 일어나 교문을 열어줘야 한다. 새벽 5시 반엔 아침 신문을 챙기고 교문, 현관문, 교실문을 일일이 연다. 교문과 현관 앞까지 끌고 나면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다. 그러다보면 아침 8시 반이 돼야 퇴근을 할 수 있다. 금요일엔 오후에 출근해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서고 월요일 아침에 퇴근한다. 지난 추석 연휴엔 엿새 동안 혼자서 빈 학교를 지켰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135시간이었다. 그러니 근무가 끝나갈 즈음 아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한 달을 꼬박 그렇게 일하고 서 노인이 집에 가져가는 월급은 간신히 80만원이 넘는다. 근로인정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평일은 5시간 내외, 토요일과 일요일엔 8시간 내외다.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한다. 억울하지만 어찌겠는가. 이 나이에 또 다시 직장을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탁, 탁, 탁’ 소리의 정체를 밝히다

손전등을 켜졌지만 서 노인은 섣뜻 밖으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대로 혼자 나섰다가 뜻밖에 도둑이라도 만난다면 낭패였다. 다시 주저앉았는데 행정실 김 선생의 말이 떠올랐다.

‘밤에는 어르신이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김 선생은 퇴근길에 숙직실에 들러 매번 같은 당부를 했다. 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화분 하나가 깨져도 월급에서 제한다. 서 노인은 꿈 소리를 내며 일어났다.

운동장이 검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탁, 탁, 탁’ 소리는 계속됐다. 덜컥 겁이 났다. 눈을 질끈 감고 손전등에 의지해 학교 담을 따라 걸었다. 교문이 가까워지자 소리가 똑 끊겼다. 얼른 교문 앞으로 다가섰다.

“거기, 누구 있남?”

서 노인은 교문 철창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담벼락에 바짝 붙은 운동화 코가 보였다.

“아인가 본디, 이 시간에 여긴 왜 있는겨, 응?”

그제야 주춤춤 사내아이가 나왔다. 5학년이나 6학년쯤 돼 보였다.

“이 핵교 다니는 학상이여? 니가 매일 밤 여기서 그 소리를 냈던 거여?”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담벼락만 찼다. 탁.탁.탁.

“왜 그러는겨, 말해봐, 무슨 불만 있는 거여? 엄마, 아빠는?”

“....”

“말해봐, 내가 밤에는 교장 선생님이며. 그게 무슨 뜻인줄 알아? 나한테 다 말하면 된단 뜻이며. 알아?”

밤의 교장이란 말을 이럴 때 써 먹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말해놓고 보니 그럴 듯했다. 학교 건물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학교를 찾아온 학생도 돌보는 게 웬지 자신의 일인 것만 같았다.

아이가 물끄러미 서 노인을 바라봤다. 뭔가 말할 듯하더니, 그대로 뒤돌아 달아났다.

“왜, 그러, 응? 아가!”



무거운 짐을 덜어준 처우개선 소식에 새 힘을 얻다

아침이 되자 어김없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아침뉴스에서 학교 당직자 처우개선에 대한 소식이 나오더라구요.”

아들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밝았다.

“그게 무슨 소리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직자의 근무를 2교대로 전환하고 월급도 올려주라는 권고안을 마련했대요. 근무여건도 개선된대요.”

“그러?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돼요. 이제야 말이지만 밤마다 제 속이, 속이 아니었어요.”

서 노인은 아들의 마음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 공연히 가슴이 울컥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말로 고마운 일을 해줬구먼. 허허.”

목이 잠겨와 일부러 크게 웃었다.

“그건 그렇구요, 지난밤에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들은 그 얘기도 흘려듣지 않고 내심 걱정을 했던 모양이다.

“그러, 알고 보니 여기 학상이 담벼락을 탁탁 차고 있드라니께. 아무리 물어도 사연은 말을 않구.”

“왕따라도 당했나 보죠.”

“글씨, 그 시간에 집에 부모님은 안 계신가, 학교에 왔으면 학교에 불 일이 있을 텐디, 담에는 그걸 꼭 알아봐야겠어.”

“아버님이 왜요?”

“내가 밤의 교장이잖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더러 일을 더 잘하라고 그렇게 해준 거 아녀?”

서 노인의 입가에 피로 대신 환한 미소가 담겨있었다.



Case Information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총 10,274개의 초·중·고 중 69.3%가 당직기사 운영을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었다. 이중 대부분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 15시간 이상, 주말 63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인건비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신문고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권익의 파수꾼이 되다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지난 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권익 위 이정보 위원장, 국회 김정훈 정부위원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국

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문고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는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

로 제정하고 국민권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로, 권익위는 이날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1회 기념식을 개최,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한국형 권익보호 기구로서의 위원회 성과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국민고충 해결과 부패방지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권익 수호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소리를 국회에 원활하게 전달하고,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국민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훈 국회 정부위원장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면서 “복지예산 누수를 막는 정부합동 복지 부정신고센터 마련은 정말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2,3. 국민신문고 대상은 훈장 5명, 포장 5명을 비롯해 13개 단체와 104명 개인이 수상했다



2



3



3



4



5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 민신문고대상을 통해 13개 단체와 104명 개인에게 포상 기념식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했다.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은 각각 옴부즈만 부문, 행정심판 부문, 권익개선 부문, 부패방지 부문으로 나뉘어 훈장 5명, 포장 5명 등 13개 단체와 104명 개인에게 정부 포상 총 60점, 위원장 표창 57점을 시상했다. 부패방지 분야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송태원 대검찰청 서기관은 반부패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으로 상을 받았다. 31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해 온 송 서기관은 금품을 수수한 고위공무원들을 적발, 사법처리 한 것을 비롯해 대규모 법조 브로커 조직을 적발하여 구속하는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했다. 작년 한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원전비리 사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정금 특별 수사, 4대강 입찰담합 사건 등에 연 230여 명의 전문 수사관을 파견하여 비리실태를 파헤치는데 일조한 것은 물론, 일선 지청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청렴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계분석 요원과 계좌추적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우수한 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교육시켜 왔으며,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선발된 수사관 23명 전원이 회계 관련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권익개선 부문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김태형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팀장은 2012년 7월부터 권익위와 함께 국민-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공동기획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정책을 만드는 ‘정부 3.0’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꾸준히 진행하고 발전시키는 공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주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해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 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다 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패행위 제보자 A씨는 작년 4월경 원전 신고리 3·4호기의 안전등급 케이블 납품업체의 비리를 신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 원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원전비리 수사단’이 설치되어 품질 서류 발급, 계약,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전의 구조적·관행적 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A씨의 공익신고로 인해 원전비리 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됐고, 결과적으로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언론계 인사로는 MBC 송양환 기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K9자주포 납품 비리, 해군고속정 납품 비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군납 관련 비리 사건을 중점 보도해 군납 업체 스스로 비리 척결 운동

- 3.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 교서를 내린 날을 기념한 ‘국민권익의 날’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 4. 이정보 위원장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했다
- 5. 시상식 후 2부는 국악과 가요, 연극 등의 문화 공연을 접목한 청렴콘서트로 진행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을 벌이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디.디.피.세나나야케(Mr. D.D.P.Senanayake) 노무참사관은 유일한 외국인 수상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국에 거주하는 2만 3천여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한국 내에서 행정 시스템과 법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한국 내의 스리랑카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외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정보 위원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이들 수상자들 덕분에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충해소에 앞장서고, 선진국 수준의 부패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국 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를 위해 시상식 후 2부는 국악과 가요, 연극 등의 문화 공연을 접목한 청렴콘서트로 진행됐다. 퓨전국악연주단 ‘예화’의 공연으로 문을 연 콘서트는 내빈들은 물론 수상자 및 가족들까지 즐겁게 관람하며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공직자의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 ‘고 이사의 하루’는 인사청탁을 받은 고 이사의 모습을 통해 웃음과 교훈을 전해 주었으며, 슈퍼스타K 5 출신의 스티파노 씨는 노래와 함께 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남부발전 청렴 실천사례를 다룬 청렴토크를 통해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부 출범 1년간 대표적 권익구제 사례를 모은 감동사례집 <행복가득 희망을 전합니다>를 제작해 배포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는 어느 한 사람,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권익의 날’을 통해 권익위의 활동과 우수사례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이 권익을 보호받고 더 많은 기관들이 청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항공법 관련법령 개정으로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시행

배보다 배꼽이 큰 항공권 운임, 거품을 확 걷어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다.

혼자만의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것.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키운 사례를 만나보자.

저렴한 항공권에 숨겨진 비밀

“어머! 이걸 질러야 돼!”

저가항공사 사이트를 뒤지다가 대박 상품을 발견한 A씨. 인천에서 홍콩까지 편도 항공요금이 6만 9천원이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초 특가 상품임이 분명했다. A씨는 혹시나 매진될까봐 서둘러 카드부터 꺼내들고 결제를 시작했다.

기쁨으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항공편을 고르고 내 정보까지 전부 다 입력완료! 이제 마지막 결제단계만 마무리하면 예약 끝인데...어라? 처음 본 가격과 하늘과 땅 차이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6만 9천원은 간데 없고, 세 배가 넘는 21만 4천원이 떡 하니 화면에 떠 있는게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조그맣게 공항 이용요금과 유류 할증료가 더해진다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공항 이용요금과 유류 할증료, 부가세를 쏙 빼고 기본운임만 걸어놓았던 것.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요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A씨였지만, 순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혹했던 것이다.

“아~진짜 제대로 낚였네. 처음부터 이용요금 전체를 합친 가격으로 광고하면 얼마나 좋아!”

숨은 요금 사라지고, 신뢰도를 높인다

여행사와 항공사에서 항공권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실제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요금, 부가세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본운임보다 다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끼리 가격을 보고 덜컥 예약하려다가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8월부터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 예매하거나 항공권을 광고할 때 기본운임에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등 추가비용을 포함한 ‘항공총액운임표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자율제이다보니 항공사들이 총액요금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작게 표시하거나 ‘유류할증료 미포함’으로 표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행복제안센터에 항공권과 여행상품 등의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고지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됐고, 국토해양부는 이 제안을 채택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3년 12월 항공법을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도가 의무화되어 항공권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피해구제 현장조정회의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 민생현장 속으로!

나라의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국책사업, 그러나 그 추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사업 규모도 크고, 한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사업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에 권익위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생생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재하는 방법을 택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생긴 현장에도 권익위는 직접 달려가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갈등 중재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민원현장을 둘러보는 이성보 위원장



봄비처럼 반가운 갈등해결 소식이 찾아오다

봄비가 촉촉이 내려앉은 한적한 시골마을, 마을 전체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마당 한 칸에 커다란 차양이 쳐지고,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 앉기 시작한다. 안전모를 쓴 건설사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지자체와 권익위 담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도착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의 말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이들의 표정에는 기분좋은 미소가 번진다.

오늘은 영천시 가상마을과 매산마을 주민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의 질과 마을의 모습이 결정될 중요한 날이다. 바로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긴 시행기관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권익위원장의 참석 하에 합의에 서명하는 현장조정회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대구·구미권의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물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고속도로 개설구간 중 흙을 독처럼 높이 쌓아 만드는 9공구의 성토 구간 공사가 문제가 됐다. 10~20m 높이의 흙더미가 마을을 가로막는 상황이 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가상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높이 23m의 거대한 성토가 생기게 되면 마을이 고립되고 통풍이 막혀 복숭아 농사에 큰 피해가 생긴다는 점을, 매산마을 주민들은 12m 가량의 성토가 쌓이게 되면 마을이 반으로 나뉘게 된다고 호소하며 해당 구간의 공사를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은 만만찮은 일이었다.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상주영천고속도로(주)로서는 공사 지연은 물론, 총 50억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마을 주민들과 시행기관의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가상마을과 매산마을 주민들은 2013년 10월과 11월 각각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꾸준한 대화와 현장 방문으로 중재에 성공하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두 마을 주민들이 각각 별도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일한 사업 구간에 비슷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함께 진

행하기로 하고,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확인했다. 실제 가상마을 입구는 산악지형이어서 23m짜리 성토공사를 하게 되면 마을 입구가 꼭 막혀버린 듯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었다. 매산마을의 경우에도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입도로가 너무 좁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수차례 관계자 실무협의를 열어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다. 물론 양측이 다 만족하는 결과를 낸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권익위는 양측의 의견을 끈기 있게 조율해 가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데 주력했다. 부지런한 중재 노력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주민들과 시행기관은 마침내 권익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가상마을 앞 성토 구간은 터널로 시공할 경우 지리적으로 열악해 진다는 점과 편익성을 고려해 교량으로 바뀌었다. 또 매산마을은 교량을 시공할 경우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진입도로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인도를 만들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별도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사비용과 주민의 권익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화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번 조정은 신청인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만들어 낸 소통의 결과입니다. 2년 동안 이어진 민원이 양보와 협조로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가상마을과 매산마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현황과 앞으로의 진

행 방법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현장조정회의, 합리적인 갈등해결방법으로 자리매김

뒤이어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각 마을 대표자와 손해락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엄진우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 김영석 영천시장이 참석했으며, 마을 주민들도 배석해 회의를 지켜봤다. 현장조정은 당사자가 토론,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권익위가 개입, 중재해서 서로 수용가능한 해결책 도출을 돕는 분쟁해결 기능이다. 현장조정에서는 권익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주재 하에 민원인과 관계기관을 모두 참석시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합의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치게 된다. 권익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과적인 민원 해소와 갈등해결을 위해 실시된 현장조정은 2011년 24건이 이뤄진 이후 점차 증가해 2013년에는 4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집단 민원이 대형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민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만족합니다. 앞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사고 없이 공사가

잘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마을과 매산마을 대표자들은 입을 모아 ‘권익위의 중재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현장조정이 잘 이뤄진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표현했다.



갈등민원 해결은 상호 협조가 가장 중요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소감에 “권익위 조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화답했으며, 엄진우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명품 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현장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의 조정은 그 자체가 확정된 판결이지만, 권익위의 조정은 상호 협조가 전제로 깔려 있다. 현장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합의안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 점을 강조하며 “또 오늘 회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이행을 위해 서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 관이 서로 협력해 국책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민 불편은 해소됐지만, 100%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행사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 우리 권익위도 오늘 조정을 성사시킨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 권익위는 집단민원이 공공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적극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련 법 · 제도의 보완, 특별팀 운영 등을 검토 중이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권익위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민원현장 두 곳을 방문하고 주민 대표자들과 영천시청, 시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이성보 위원장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박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

풀뿌리 청렴자치, 부패행위 근절에서 시작된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는 공공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부패 근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 행위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공직자 부패사례, 절반 이상이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해

최근 지방행정분야의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 5,080명 중 과반수 이상인 2,919명이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것. 또 지방행정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은 수뢰·향응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부패였지만, 부패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은 15.9%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처럼 인사, 지역개발, 인허가, 계약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

리와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현 의원과 이종수 연세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최병대 한양대 교수, 김수태 전라북도 감사관 등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진영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해마다 낮아져 공공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고 말하고, “지방부패의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사회의 청렴도 제고는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공직자들과 지방행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지방부패 근절에 나선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지방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온정적인 처벌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과 방안들이 제시됐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인사를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공직에 대한 사유화 관념에서 벗어나 이해충돌방지 장치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 논의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낸다면 부패문제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으며 김혁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장은 부패방지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선심성·행사성 예산 집행 등 지자체의 부실경영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자체 감사관실을 지방의회 산하에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정책 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태 전라북도 감사관은 “온정주의 처벌관행이 가장 큰 문제지만,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개선, 지방공사 공단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장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 개선활동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지방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국민권익 개선사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 함께하고 있다.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폭력 재심은 위법·부당



Case

중학생 A양이 동급생 4명의 따돌림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는 고인이 된 A양에게 사과가 불가능하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봉사 조치를 내렸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학생 중 두 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자치위원회에서는 둘 중 한 학생만 특별교육 이수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이 사망해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재심결정을 내린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치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도 순직 인정해야



Case

현역병으로 입영한 L씨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교도소 경비임무를 맡게 됐다. 그런데 L씨는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결국 자해 사망하고 말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L씨의 자살이 공무와 무관하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현역 군인의 경우 구타와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경우 순직을 인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법무부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조사를 실시했다.

Solution

권익위 조사 결과 L씨가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는 통상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이었음 밝혀졌다. 따라서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L씨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L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했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요건 강화는 위법



Case

B씨는 한 빌딩에 3년 정도 세들어 살다가 전세대금 대출을 위해 잠깐 주민등록을 옮겼다. 주민등록을 옮기기 직전 인근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B씨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했다. 주민세와 도시가스 요금을 계속 납부하며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은 B씨가 공람공고 이후 계속 정비구역 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Solution

권익위는 조합의 결정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조합에 시정을 권고했다. B씨가 현재까지 해당 주택에서 주민세와 도시가스요금을 내고 있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로 보아야 하고,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고 이후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는 향후 정비사업과 이주비 지급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고위직 퇴직공무원 로펌 취업제한은 필요



Case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D씨는 A부처의 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했다. 퇴직 후 B로펌에 취업하려 했던 D씨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B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B로펌의 수임사건을 결재했고,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B로펌과 관계있기 때문에 향후 2년간 B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D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며 D씨의 취업 제한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둔 것은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근절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이므로 단 한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B로펌에의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민원인의 기쁜 목소리에 더욱 힘을 얻으며

다급한 한 남자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감 최초 신고에 대해서 좀 문의하려고요. 우리 아들이 자동차 매도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 한데, 출장 때문에 주소지에서 좀 멀리 있어요. 시간을 내서 주소지에 오기가 힘든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출장이라 하시면 국내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감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은 안 된다고만 하네요. 이런 사유는 서면신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요.”

인감은 본인이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서면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 야 가능했다. 나는 서면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여섯 가지 사유에 좀 더 추가해주면 안되냐?”

민원인은 답답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허허’ 웃으셨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 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어오셨다. 현재 아드님이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인감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듯 했다. 그 분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어떻게든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지 궁리하다가 문득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선생님, 꼭 인감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 있어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도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 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굳이 주소지로 오지 않고 가 까운 주민센터만 가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아드님 상황에 딱 맞는 해결 방 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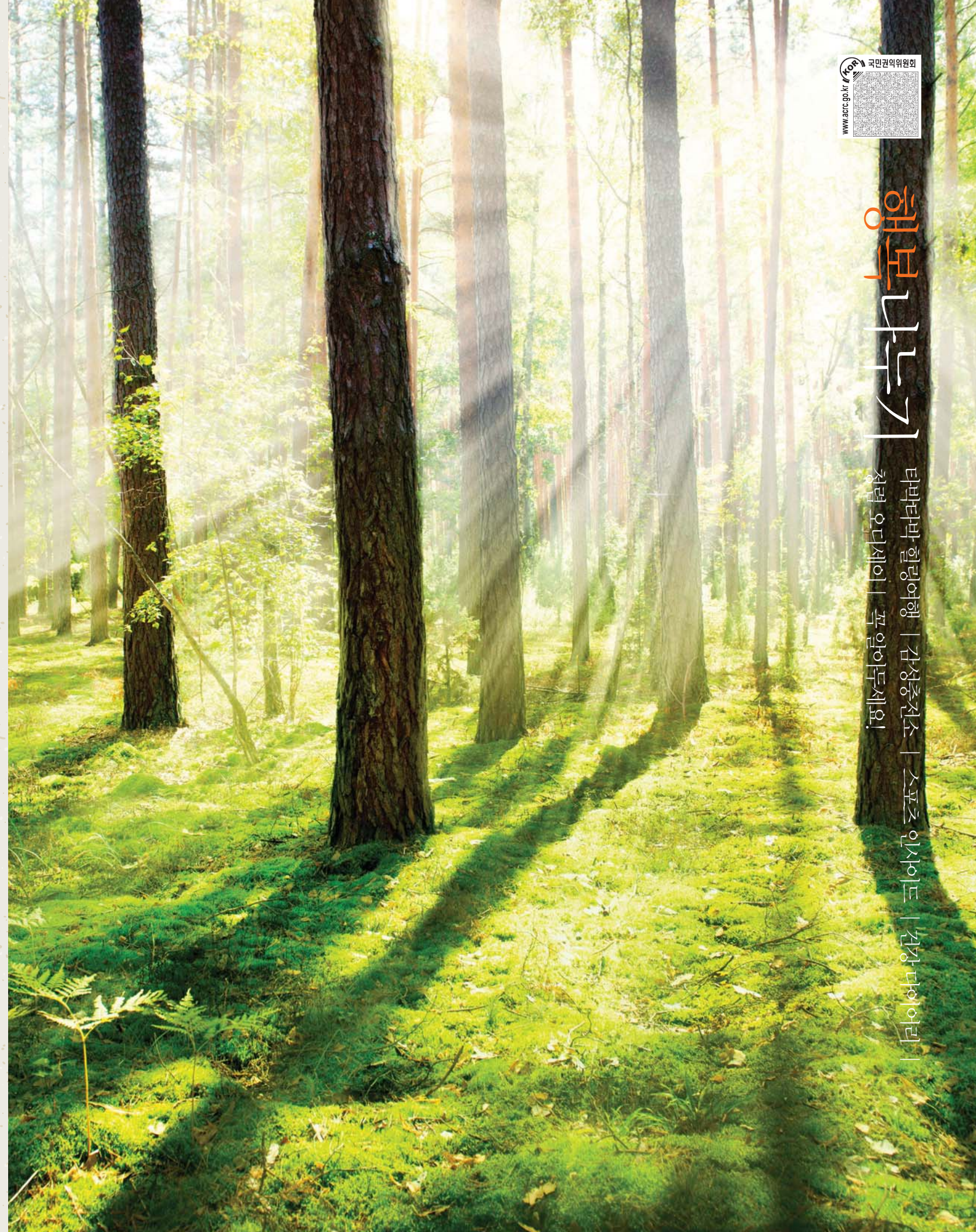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라고요?”

반색하며 기뻐하시는 민원인에게 발급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내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 다. 사실 나도 상담센터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았을 것이었다. 상담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런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쁜 상담사레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앞으 로도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더욱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행복나누기

타박타박 힐링여행 | 감성충전소 | 스포츠 인사이트 | 건강 다이어리 |
청력 오디세이 | 꼭 알아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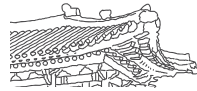
600년 역사도시 서울

보물창고를 뒤지듯 서촌과 북촌을 거닐다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이 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촌과 북촌으로 나뉘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풍경이다. 막힌 듯 열리고 열린 듯 돌아가야 하는 골목이 이처럼 극적일 수 있을까. 서촌과 북촌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600년 동안 가족처럼 살아왔지만 현재의 모습은 남남처럼 뉘은꼴을 찾기 어렵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한옥들이 지붕처마를 잇댄 곳이 북촌이라면 서촌은 벽과 벽을 이웃과 공유하는 도시형 골목의 전형이다. 한옥의 아름다움에 취하든 골목길의 정감에 취하든 분명한 것은 서울의 귀중한 보물창고라는 사실이다. 보물창고를 뒤지듯 서촌과 북촌을 거닐어 보자.



북촌의 보물, 8경을 찾는 즐거움



서울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북촌 한옥마을이다. 한옥을 세심한 눈으로 살피는 그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가 외국풍경에 도취되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모습이 떠오른다. 지붕 처마가 다닥다닥 붙은 한옥은 그 어떤 것보다 한국적인 모습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옥의 고즈넉한 멋은 또 다른 힐링임에 분명하다. 수직화되고 도식화된 서울의 중심에 북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에 편안함이 밀려온다. 그런 점에서 북촌은 마음에 찍는 명소이면서 활력소이다.

북촌 한옥마을의 시작은 계동 현대사옥 옆 골목길에서 시작한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북촌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지도를 비롯한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정보를 챙길 수 있다. 언덕길을 오르면 잠시 후 창덕궁 돌담이 보인다. 그 뒤로 펼쳐진 궁궐의 모습이 위엄 있다. 담과 어우러진 궁궐의 모습이 궁 안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이곳이 북촌1경이다. 2경은 창덕궁 돌담길을 따라 가면 나오는 원서동 공방길이다. 옛날에는 조선왕실을 돌보던 나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때의 흔적처럼 아직도 궁중음식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드는 공방들이 모여 있다. 3경은 가회동 11번지 일대를 일컫는데 일명 '박물관 길'로 통한다. 그만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박물관이나 공방이 많은 까닭이다. 처마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처마가 바통을 이어받아 연결되는 모습은 북촌 한옥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기와의 물결이다. 이 지점이 4경이다. 5경은 가회동 골목길을 올라가는 구간이다. 언덕에 올라서면 6경인데 어깨를 나란히 한 한옥의 모습이 점층적으로 이어지고 그 끝 지점에 서울 N타워가 얼굴을 빼꼼히 내민다. 북촌8경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포토 스팟이 이곳이다. 6경을 뒤로하고 왼쪽골목으로 들어서면 7경이다. 5경과 6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 그 덕에 조용히 산보하듯 골목을 거닐 수 있다. 조용한 골목을 걷다보니 북촌 한옥마을의 소소한 풍경에 눈이 간다. 대문 앞에 내어놓은 화분과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달그락 거

리며 설거지하는 소리 등 한옥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생활을 상상해본다. 마지막 8경은 카페거리로 유명한 삼청동길로 내려가는 돌계단길이다. 계단은 작은 돌을 이어 붙여 만든 계단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를 통째로 조각해서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나름 조각의 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골목에 감춰진 숨은 이야기를 찾는 즐거움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있는 영추문을 기준으로 통인동, 통의동, 효자동 등 13개 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서촌은 경복궁 영추문에서 시작한다. 영추문 맞은편에 '보안여관'이 있다. 이곳에서 시인 서정주는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들었다. 또 시인 김동리, 화가 이중섭도 자주 얼굴을 비쳤다고 한다. 현재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된다. 여관을 지나 왼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크고 작은 갤러리와 카페가 연이어 등장한다. 저마다 개성을 갖고 있어야 손님을 끌 수 있는 듯 독창적인 카페가 많다.

허름한 한옥에 '대오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있다. 60년 동안 고책을 팔아오다가 지금은 카페로 이용하고 있다. 걸모습은 영화세트장처럼 허술하다. 언론매체와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좁은 실내의 발 디딜 틈이 없다. 위로 더 올라가면 52년이 넘는 중국집 영화루가 나온다. 2대째 운영 중에 있으며 옛 중국집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박노수 화백은 해방 후 왜색 짙은 화풍에서 우리의 색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 한국화 1세대 작가다. 건물은 1937년 건축가 박길룡에 의해 지어졌고 친일가 윤덕영이 살던 집을 1973년 박 화백이 인수했다. 지난해 별세한 박 화백이 서울 종로구청에 기증하면서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건물외관은 한옥과 양옥이 절충되었는데 지붕은 서까래를 노출한 단순 박공지붕이다. 실내에는 그의 작품 수십 점이 기획전 시중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골목길 막다른 곳에 마을버스 종점이 있다. 더 올라가면 인왕산이다. 벽처럼 서 있는 인왕산의 기개(氣概)가 대단하다. 마을에 있는 계곡

은 수성동 계곡인데 겸재 정선의 그림 '수성동'의 배경이 된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기린교'라는 특별한 통돌다리가 있다. 1950년대까지만 재하다가 1960년대에 옥인시범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7년 문화유적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원위치해 놓았다.

출출하다면 통인시장을 찾아보자. 이곳은 규모에 비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는 엽전이 한몫을 했다. 1개당 500원인 엽전을 이용해서 반찬가게에 들러 원하는 반찬을 산 뒤에 고객센터 2층에서 밥과 국을 사서 먹으면 된다. 재미있게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젊은 여행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주말에는 이 도시락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한다. 통인시장만의 별미도 있다. 떡볶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기름떡볶이가 주인공이다. 간장맛과 고춧가루양념 맛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역시 주말에는 30분 정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다.

발길이 머문 곳이 한옥이어도 좋고 옛날식 골목길이어도 좋다. 다만 그곳에서 시계의 초침과 분침을 천천히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도시에서 맛보는 힐링은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으면서부터 시작된다.



북촌 한옥마을 여행정보

북촌 한옥마을여행은 포토 스팟이 있는 1경에서 8경까지 찾아가는 재미를 즐겨도 좋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좋다.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한옥스테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곳은 모두 다섯 곳인데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촌 한옥체험관(02-743-8530, www.bukchon72.com)은 동양화가 배림이 살았던 곳으로써 SH공사의 소유다. '모'자형 구조를 하고 있어 어느 방에 묵어도 마당가운데 있는 정원을 내다볼 수 있어 운치가 있다. 별채 외에는 화장실, 주방, 거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싱글룸, 트윈룸, 더블룸이 있다. 그 외에 민화공방, 국악체험공방, 금박공방, 덕종이인형공방에서도 전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문의 : 북촌한옥마을 <http://bukchon.seoul.go.kr/> 02-2133-1371,
재동초교 관광안내소 02-2148-4160, 정독도서관 관광안내소 02-2148-4161

봄나들이 가족체험

솔솔 부는 바람 따라 살살 나들이 떠나 볼까?

차가운 바람을 연신 뿜어내며 사람들의 옷깃을 쫘쫘 여미게 했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과 부드러운 햇살이 느껴지면 축 늘 어졌던 몸과 마음이 활기를 얻게 된다. 칙칙한 무채색의 풍경이 여 기저기 피어 오르는 꽃망울로 화려한 색감으로 물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집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들뜬다. 어디를 가 도 넘쳐날 사람들 때문에 나들이를 망설이고 있다면 조금 색다른 테마로 봄 나들이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딸기 따기

딸기 따기 체험은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봄철 체험 여행 중 가장 유명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대부분 양평이나 논산 부 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에서 개별적으로 체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사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있다.

보통 딸기를 재배하는 비닐 하우스에 들어가 직접 딸기를 따고 직 접 탄 딸기 한 팩(500g 내외)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 여기에 프로 그램 별로 딸기 비누 만들기, 딸기 잼 만들기, 딸기 초콜릿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도 있다.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밭에서 자라는 식물을 직접 관찰해 보고 자신의 손으로 수확하는 즐거움까지 경험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특히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 양평, 논산 부

근에는 체험 후에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 무박 혹은 1박 정도의 짧은 가족 여행으로도 제격이다.

고풍스러운 옛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고궁 나들이

서울의 4대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고궁들은 옛 건축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서울의 5대궁 중 경복궁은 조선 의 중심이 되었던 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우며, 창덕궁은 경 복궁의 소실 이후에 270년간 조선 제일의 궁이 되었던 곳으로 가장 한국적인 멋을 간직한 궁으로 정평이 나 있다. 창덕궁의 생활 환경을 넓히기 위해 지어졌던 창경궁은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멋이 있는데,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대운실도 있다. 대한제국 창건 당시 경북

궁을 대신해 나라의 중심 역할을 했던 덕수궁은 서양식 건물과 동양 식 건물의 조화를 자랑한다. 건물은 몇 채 없지만 고즈넉한 아름다움 이 있는 경희궁은 호젓하게 산책하기에 딱 좋다. 5대궁 투어를 할 생 각이라면 고궁 통합 입장권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가격은 1만원으로 각 궁의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하며 창덕궁 비원과 종묘까지 둘러볼 수 있다.

사뿐사뿐 봄을 밟는 보리밭 밟기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밭을 멈춘다'하는 노 래 가사가 절로 떠오르는 보리밭 밟기는 봄을 맞으러 나가는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다. 탁 트인 벌판 가득 넘실대는 초록의 물결을 보노라면 잠시나마 세상 풍파 모든 고민을 잊게 된다. 보리를 키우는데 꼭 해야 할 작업인 보리밭 밟기는 서릿발로 들뜬 땅에 뿌리 를 밀착시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 주는 것. 이제는 사람의 발이 아 닌 기계를 이용하지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시 부활했다. 청보리밭 축제는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대에서 매년 개최되며 대표적인 봄나들이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청보리음악 회, 보리개떡 만들기, 황토염색, 양떼몰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가족나들이 장소로 그만이다.

재미가 더해진 봄나들이 산책길, 올림픽 공원 9경 투어

43만 8천여 평의 넓은 대지에 세워진 올림픽 공원은 전통 한옥의 처 마를 연상시키는 평화의 문과 음악 분수, 올림픽을 기념하는 깃발과 넓은 광장, 그리고 다양하고 독특한 조각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이것저것 구경하며 산책하기에 제격이다. 9경 투어는 올림픽 공원의 핵심 포인트만 추진 투어코스로, 평화의 문 옆에 있는 안내소에서 지 도를 받아 시작하면 된다. 9경이 있는 장소 근처에는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함이 마련돼 있고 사진을 가장 잘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 련되어 있다. 1경 세계평화의 문을 시작으로 2경 엄지손가락 조각, 3 경 몽촌해자 음악분수, 4경 대화라는 주제의 조각, 5경 몽촌토성 산책로, 6경 나홀로 나무, 7경 88호수, 8경 들꽃마루, 9경 장미광장까지 이어진다. 9경 투어의 스탬프를 모두 찍어 9경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안내소에 가면 투어 완주 기념으로 볼펜이나 엽서를 받을 수 있다.



2014 프로야구 전망

3가지 키워드로 미리 보는 2014 프로야구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는 2014 프로야구가 3월 29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일제히 막을 올렸다. 올해 프로야구는 하위권 팀의 대거 전력보강과 외국인 타자 가세로 그 어느 해보다 상하위팀간의 전력차가 줄어들었다는 평가. 이에 시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가지 키워드를 통해 2014 시즌 프로야구를 미리 만나보자.



Keyword 1. 미국야구

2014 프로야구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 시작된다. 올해부터 각 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의 수가 3명(NC는 4명)으로 늘었다. 구단은 이중 최소 1명을 '타자'로 고용해야 한다. 그간의 외국인 투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새로 선보일 타자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왕년의 메이저리그 중심타자 출신부터, 오랜 마이너 생활을 벗어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선수까지 다양한 경력의 외인타자가 한국야구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중 루크 스캇(SK), 테임즈(NC), 나바로(삼성) 등은 전지훈련 연습경기부터 장거리포를 쏘아대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히메네즈(롯데)와 피에(한화)는 시범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정규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는 외국인 투수들의 독무대였다. 외인 투수들은 '다름'을 무기로 한국무대에서 성공을 거뒀다. 비슷비슷한 유형의 선수들끼리 경쟁하던 프로야구에서 2m 가까운 장신(니퍼트), 독특한 투구폼과 팔각도(주키치, 유면), 너클볼과 커터 등 새로운 구종을 던지는 투수들의 등장은 야구 생태계의 변화와 리그의 활력을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타자의 대거 등장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야구를 경험한 선수들의 타격 메커니즘, 몸 관리, 운동방법 등이 국내 선수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루크 스캇의 타격 이론, 조쉬 벨(LG)의 맨손 캐치는 벌써부터 선수들과 야구팬 사이에서 화제다. 국내 투수들 역시 이들 '다름' 타자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미국야구의 '다름'은 한국야구에는 큰 도전이기도 하다. 국내 최고 스타들의 잇단 미국야구 진출로, 이제는 메이저리그와 인기 경쟁



을 해야 하기 때문. 올 시즌에는 기존 추신수와 류현진에 윤석민(볼티모어)과 임창용(시카고 컵스)까지 4명의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다. 앞으로도 최정, 김광현, 강정호 등 정상급 선수들이 해외 진출 대기 명단에 올라 있다. 과연 한국야구는 슈퍼스타들이 줄줄이 빠져나간 뒤에도 팬들의 눈과 귀를 붙잡아둘 수 있을까. 한국야구의 경쟁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운 스타 발굴은 물론, 한국야구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Keyword 2. FA

야구 전문가들은 '올해는 모든 팀이 4강 후보'라고 이야기한다. 그 어느 해보다 상위권과 하위권 팀의 전력차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벌어진 선수대이동 때문이다. FA(자유계약선수) 시장과 트레이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많은 선수가 새로운 유니폼으로 갈아입었고, 리그 전력 재편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가장 주목할 건 FA로 팀을 옮긴 선수들의 활약상이다. 대개 고액 FA 선수가 몸값을 할지, 먹튀가 될지 결정하는 건 계약기간 초반 1~2년이 좌우한다. 정근우와 이용규를 한꺼번에 영입한 한화, 이종욱-손시헌을 두산에서 데려온 NC, 강민호를 불러 앉히고 최준석까지 데려온 롯데. 지난해 하위권에 머문 이들 세 팀은 FA 영입전에서 거둔 승리가 정규시즌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FA 대박'을 앞둔 선수들의 활약도 지켜봐야 한다. FA 역대 최고액 갱신이 확실한 최정을 비롯해 윤성환, 장원준, 송은범, 안지민, 박용택, 정성호, 김강민, 박재상, 이성열 등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올 시즌 뒤 한꺼번에 FA 자격을 얻는다. 올 겨울에는 1군 진입을 앞둔

신생팀 KT 위즈의 가세로 FA 영입전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몸값 총액이 지난해(523억 원)를 훌쩍 뛰어넘어 600억 원을 돌파할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비 FA 선수들에게는 올 시즌 대활약을 선보여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흔히 말하는 'FA로이드' 효과다. 특히 6~7명의 핵심 선수가 FA 자격을 얻는 SK와 삼성은 올해가 우승에 도전할(당분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Keyword 3. 군대

FA와 함께 또 하나의 변수는 '군대'다. 우선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올해부터 소속팀에 복귀한 선수들이 있다. 이들 예비역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는 젊은 선수들. 어떤 면으로는 기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30대 고액 FA보다 팀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지난 시즌에도 두산은 오현택, 유희관, 민병현 등 군제대 3인방의 활약으로 한국시리즈까지 올랐다. 올해는 롯데가 예비역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5승 투수 장원준과 10승 투수와의 안 바꾼다는 장성우에 내야수 오승택이 돌아왔다. 그외 한화는 3루수 김희성, LG는 좌투수 윤지웅, 삼성 외야수 문선엽, 넥센 사이드암 김대우의 활약이 기대된다. 군대가 프로야구에 가져올 효과 하나 더. 올 가을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 선수들에겐 야구로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 병역 미필 선수, 특히 20대 후반인 선수들에겐 대표팀 발탁 여부가 앞으로의 야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KIA 나지완, 삼성 차우찬, 두산 오재원, 이원석, LG 유원상, 롯데 손아섭, 전준우, NC 나성범, 이재학의 올 시즌 활약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미세먼지 · 황사 대처법

내 몸을 공격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현명한 대처법은?

최근 슈퍼 황사가 물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모래도 모자라 중금속까지 뒤범벅된 황사까지 온다니,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처하는 생활습관과 좋은 음식을 알아보자.

황사는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

황사는 단순히 누린 먼지가 아니다. 먼지 속에 중금속이 뒤섞여 있고, 그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특히 입자가 작아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는 등 호흡기 질환, 눈 질환에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약자는 폐 손상까지 이룰 수 있다.

황사는 아예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매일 대기환경지수를 확인하고 '약간 나쁨' 단계부터는 바깥활동을 자제하자. 대기환경지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기상청(www.kma.go.kr), 서울시 대기환경정보(cleanair.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간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 약간 나쁨 단계는 $81 \sim 120 \mu\text{g}/\text{m}^3$ · 일로 대기환경기준을 약간 넘어서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정된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은 24시간 평균 $100 \mu\text{g}/\text{m}^3$, 연평균 $70 \mu\text{g}/\text{m}^3$ 가 기준이다.

물걸레로
청소를
자주 하자

평소에는 하루 30분씩 2회 정도 환기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게 좋지만, 황사가 심한 날은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꼭꼭 닫는 편이 낫다.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공기정화능력이 좋은 식물이나 숲, 먼지 먹는 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플랜트 등을 집안에 들이자.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녹색 식물이 많으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잎 면적이 큰 인도고무나무, 아이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이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에어플랜트는 사막 식물로, 공중에 매달아 놓고 분무기로 몇 번만 물을 주면 되기 때문에 기르기도 쉽다.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는 쌓이지 않게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다. 카펫, 침구, 인형 등 먼지가 쌓이기 쉬운 패브릭 제품은 미리 정리하고, 가전제품에 일어나는 정전기는 먼지를 끌어들이므로 안 쓸 때는 빼둔다. 청소기나 먼지떨이보다는 물걸레가 먼지를 닦아내는 데 유리하다. 창틀과 창문 주변은 꼼꼼히 닦고, 근처에 뒀던 물건도 자주 닦아 쓴다.

일상 속
꼼꼼한
관리가 필요

외출할 때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피부에 직접 닿는 면적을 최대한 줄이자. 긴소매, 긴바지 옷을 입고,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등을 착용한다. 마스크를 쓸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쓴다. 일반 방한용 마스크와 달리 황사용 마스크는 필터 구조와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을 갖췄다. $0.04 \sim 1.0 \mu\text{m}$ 크기의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쓸 때는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추고, 끈을 조여 고정한다. 코 모양에 따라 천이 당겨지면 코와 천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쉬우므로 코 부위에 금속편이 박혀 밀착시킬 수 있는 제품이 좋다.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빠져나가는지 체크하자. 황사용 마스크는 한 번 쓰면 재사용하거나 빨아 쓰지 말

고 버리는 것이 좋다.

바깥에서 활동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면 황사와 미세먼지를 청정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셈이 된다. 문밖에서 옷을 털어내고, 테이프 클리너 등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자.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꼼꼼하게 세안해 피부에 묻은 미세먼지까지 없애자.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씻어내는 것도 황사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황사,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음식

황사 속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한번 몸에 들어가면 배출하기 쉽지 않고, 중금속까지 뒤섞여 있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몸에 들어온 황사를 배출하려면 스스로 노

폐물을 배출하는 우리 몸의 디톡스 작용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 들어 있는 미역은 미역 속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알긴산 성분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미세먼지 속 중금속을 배출해 주는 것이다. 다시마와 파래 등 해조류 대부분이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난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 브로콜리는 섬유질뿐 아니라 칼륨 함량이 높는데,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양파 속 폴리페놀은 수은, 니코틴 등을 해독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사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은 납, 알루미늄 등 중금속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펙틴은 과육보다 껍질에 많이 들어 있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도록 하자.

호흡기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가래를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낸다. 디톡스 반응의 일종인데, 목이 칼칼하고 불편하다고 억지로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으면 기관지 점막을 손상할 수 있다. 이럴 때 물을 많이 마셔 가래가 묽어지도록 하면 노폐물 배출이 수월해진다. 비타민C와 구연산 등이 풍부한 모과를 차로 만들어 마시면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줄여준다. 기관지를 건강하게 한다는 도라지를 차로 끓여마시는 것도 기관지 건강에 좋다.



핀란드 공직사회의 청렴

다리미를 든 대통령, 세계 1위 청렴국가를 만들다

국가 원수가 해외 출장 중에 직접 다리미질을 해서 옷을 다려 입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수행하면서 도와줄 것을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의심스러운 이야기다. 하지만 먼 옛날 일도, 그냥 떠도는 소문도 아니다. 바로 2000년에 방한한 핀란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의 일화다.

때로는 이웃집 아줌마, 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인 타르야 할로넨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핀란드 대표로 한국을 찾은 핀란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은 금세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집에서 쓰던 다리미와 다리미판을 가져와 손수 옷을 다려 입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의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이 화제에 오르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머리 손질은 내가 할 수 있다”며 호텔 전문미용사 머리 손질도 사양했으며, 호텔에서 내놓은 치약을 마다하고 가져온 여행용 치약을 끝까지 짜 쓰는 살뜰함을 보였다. 이러한 할로넨의 소탈한 모습은 평소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나도 핀란드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해온 할로넨은 대통령이 라기보다는 이웃집 아줌마처럼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핀란드인의 사랑을 받으며 ‘무민마마(Moomin Mama)’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핀란드 동화작가 토베 얀손(Tove Jansson)이 만든 캐릭터인 무민(Moomin)은 핀란드 국민에게는 우리나라 뽀로로만큼 사랑받는 국민 캐릭터. ‘무민’의 엄마는 늘 맛있는 음식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핀란드 사람들 행복을 빌면서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온다. ‘무민마마’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가득 담은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할로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세운 위대한 리더이기도 하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핀란드를 이끌었던 데다가, 2009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었으며 핀란드뿐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영향력 높은 인물이었다. 여성과 약자를 보듬어 안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할로넨은 결국 국가 청렴도 1위, 국가경쟁력 1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위, 환경지수 1위라는 놀라운 결실을 이뤄냈다.

2000년을 이어온 청렴 노력, 국가경쟁력 1위로 꽃피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청렴하고 발전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핀란드는 200년 전부터 청렴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1809년에 독특한 반부패기구인 감사원을, 1920년에 의회 옴부즈만 등 독립된 사정기구를 세워 정부의 부패 척결에 일찍부터 힘을 쏟아온 것이다.

200년 역사의 사정감독원은 핀란드 최고의 법집행기구로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공무원 등의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비리 등을 감시하고, 법정의 재판절차를 감독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다. 의회 옴부즈만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감찰 기능, 형사소추 기능,



정책제안 기능 등을 하고 있다. 누구나 행정상 혹은 법률적으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쉽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 비리 혐의가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간단하게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특한 사회문화도 일조했다. 핀란드는 루터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성직자는 공무원 신분이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어릴 때부터 청렴하고 이타적인 종교 정신을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렴한 문화가 자리매김 한 것이다.

부패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처벌도 빼놓을 수 없다. 핀란드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정치나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부정부패로 인식된다. 수입에 따라 벌금을 달리할 정도로 처벌법규가 세분화 돼 있다. 핀란드 모든 언론사에는 부패전담기자가 있고 국민 모두가 소득과 소비를 공개한다. 또 핀란드는 공적인 문서에 대한 접근이 쉽다. 국민이 보고자 하는 모든 문서는 공직자들이 공개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중요한 결정은 대중 앞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사회제도가 촘촘히 갖춰져 있으니 부정부패가 일어날 틈이 없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A warm beer and a cold sandwich are suitable for a civil servant but vice versa they are risky.)’ 시원한 맥주와 샌드위치조차 뇌물로 여기는 핀란드의 속담이다. 공직자에게 명예박사를 주는 것을 뇌물로 여기는 나라, 노천 시장에서도 신용카드를 받으며 투명하게 세금을 관리하는 나라. 핀란드는 정직과 청렴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대형 폐가전,
이제 문 앞에다 버리세요!

오래되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대형 폐가전제품, 하지만 막상 버리려니 돈과 수고가 두 배로 들어 걱정이었다면 이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대형 폐가전제품을 지정된 요일에 맞춰 문 앞에 두기만 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배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 무료’ 서비스라니 더욱 눈길을 끈다.

2012년 서울시 전면 시행, 올해부터 전국 확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이미 서울과 부산 등 광역시도에서 시범 실시되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검증된 제도다. 무엇보다 반응이 좋았던 이유는 기존에 자치구에 따라 최고 1만5,000원까지 하던 배출 스티커가 폐지되어 전면 무료로 시행되는 서비스이기 때문. 버리고자 하는 대형 가전이 있을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바로 집 앞까지 수거반이 도착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간다. 지난해 환경부가 수거한 폐가전제품만 따져 봐도 16만 대 수준,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아끼게 된 배출 수수료만 해도 21억원에 달한다. 폐기물 매립 비용 등 140억원을 절약하고 냉각기 등 값비싼 부품 등을 몰래 빼내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 시민 부담은 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니, 이 정도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 정책이라 볼 수 있을 듯하다.

원스톱의 편리함에 사회 환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

시민들의 부담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지구의 부담도 확 줄어들었다.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들은 배출 즉시 바로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 장소에 일정 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으로 냉장고나 에어컨 등에서 값이 나가는 냉각기만 떼어다 팔려는 일부 몰치각한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 이들은 꼭 필요한 부품만 떼어내고 나머지는 방치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가스(CFCs)를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제 폐가



전제품들이 길가에 방치되는 일 없이 곧바로 수거되니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는 당사자가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버리는 방식으로 스티커 비용과 운반비가 들어 몇몇 사람들은 몰래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불법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제대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폐가전제품 배출 과정을 단순화하고 배출 즉시 리사이클링센터로 운송되니 재활용 비율도 높아져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연간 2만 1천 톤의 유가 자원의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형폐가전의 재활용 체계는 이렇다. 폐가전 배출을 원하는 소비

자가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배출 예약을 접수하면 배출예약시스템이 공공 물류를 통해 회수 일정을 잡게 된다. 해당하는 날짜에 수거반이 직접 찾아가 폐가전을 회수해 지자체 집하장에 중간 집하해뒀다가 얼마 뒤 리사이클링센터로 운반하게 된다. 결국 모든 폐가전들이 리사이클링센터로 모이는 시스템으로 처리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단순하고 간편해졌다. 또한 ‘집중수거요일’ 등을 정해 조금 더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이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를 비롯해 가전제품 제조 회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정착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대형 폐가전 문전수거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금 중 일부는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크다.

1분이면 오케이! 간편한 예약 신청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폐가전제품 배출정보 시스템(<http://www.edtd.co.kr>)’에 접속해 ‘배출예약’ 탭으로 이동한 후 성명과 접속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배출 품목, 희망 배출일 등을 입력하면 수거 담당자가 사전 연락 후 방문을 진행한다. 희망 배출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중수거요일에 이뤄지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메모란에 희망일을 기재하면 된다. 전화(1599-0903)나 카카오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한데, 카카오톡 접속의 경우 아이디 ‘wecc’를 친구로 추가한 후 일대일 채팅을 통해 이름, 연락처, 주소, 수거희망일, 제품 및 수량, 기타 사항을 남기면 된다.

서비스대상 품목의 경우 냉장고는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등 대부분 종류의 냉장고를 포함하며 세탁기 또한 일반 세탁기와 드럼, 탈수 세탁기를 모두 취급한다.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해 일체형, 천정형 에어컨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대형 TV를 비롯해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수기, 러닝머신 등 크기가 1m 이상이 되는 폐가전제품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오디오, 컴퓨터, 팩시밀리 등 소형 가전의 경우에는 단독 배출은 불가하고 대상 품목 배출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손상된 폐가전의 경우 무상수거가 거부되니 주의할 것. 훼손된 폐가전의 경우 기존과 같이 관할 구청에서 유상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News & People

2014. 3+4

이성보 위원장, 청렴정책 홍보 위해 3월 25~29일 방미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알리고, 세계적인 반부패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 기간동안 이 위원장은 UN 경제사회국과 세계은행, 미 정부 윤리청 등을 방문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특히 올해 중점 추진 중인「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대폭 확대 계획 등 선진화된 청렴시책을 알렸다.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기여도와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

명하고,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간 반부패 협업 공조방안도 적극 협의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들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한국의 부패 개선 상황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반부패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원상담, 정부대표번호 110으로 통합 운영

현재 중앙부처별로 운영 중인 민원상담 전화번호가 정부단일 대표번호인 110번으로 통합 운영된다. 작년부터 정부단일 대표번호 운영을 논의해 온 정부는 지난 3월 6일 제3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단일 대표번호 110번으로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1단계로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 해수부 등 4개 부처 콜센터를 가장 먼저 정부단일 대표번호로 통합하여 시범운영한다. 또 2016년까지 미래부 등 4개 부처 콜센터를 추가 통합하며,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110번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비효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감동사례집 ‘행복가득 희망을 전합니다’ 발행



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 ‘국민 권익의 날’을 기념해 민원사례를 담은 국민감동사례집 ‘행복가득 희망을 전합니다’를 발행했다. 지난 1년간 권익위가 국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겪고 해결한 사례들을 담은 이 사례집에는 총 15개의 사례가 실려 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권익 소식지 앱(App),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 전자책(eBook)으로 볼 수 있다.

권익위-소비자원,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공동 추진



권익위는 지난 3월 11일 임은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협업추진과 관련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와 소비자 동향조사 등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안전·보육·금융 등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낯은 제도와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지원을 통해 민발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업과제 제도개선의 성과를 공유·평가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제도

개선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느꼈던 불편과 고충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양 기관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도개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는 지난 3월 26일 함안군청, 27일 사천 시청, 28일 하동군청을 방문해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의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도 병행했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26일 오후 2시에는 함안군 산인농공단지에서 권익위가 중소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기업옴부즈만을 가동해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 쟁점 공동학술대회

권익위와 한국행정법학회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쟁점이 많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방향,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측면에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등 4개 세부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권익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행정심판법 및 위법법령 개정 에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Quiz

아래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의 힌트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힌트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고, 힌트단어의 굵게 표시된 글자를 모아 초성퀴즈를 맞춰보세요!

ㄷ ㄹ ㄱ ㄴ

Hint
4P 작은 제목 ‘ㄷ ㅌ’
12P 제목 앞글자 ‘ㄷ ㄹ’
18P 작은 제목 ‘ㄱ ㄴ’
38P 작은 제목 ‘ㄱ ㄷ ㅌ ㅎ’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마감은 4월 30일(수)입니다.

지난호 정답
국민행복 (국민중심, 민생현장, 행정심판, 복지부정)

지난호 당첨자
박정화(부산시 강서구), 박주열(경기 하남시), 박연화(경남 하동군), 왕채연(전남 여수시), 박난희(경기도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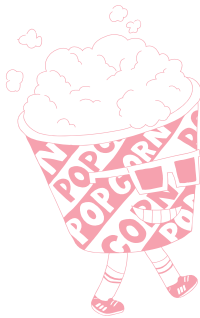
Review

박정화 (부산시 강서구)	박주열 (경기 하남시)	박연화 (경남 하동군)	왕채연 (전남 여수시)	박난희 (경기도 시흥시)
새만금 기사를 보며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체국 수수료 기사를 보며 국민권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권익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구요. 권익위의 행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내용이 유익했지만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독자엽서 한 장이 따스한 연탄 한 장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 정성스럽게 의견을 적어 따뜻한 나눔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전국의 소외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방문하는 이동신문고 서비스가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도 오신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집 할머니에게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이 나올 즈음이면 우체통을 뒤져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번호에 소개된 ‘부여 민칠식 고택’이 참 좋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수백 년의 긴 세월을 견뎌온 고택을 보며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을 해보고 싶네요.	〈국민권익〉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우체국 수수료 면제도 이런 관심으로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읽고,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게요. 국민권익 파이팅!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랑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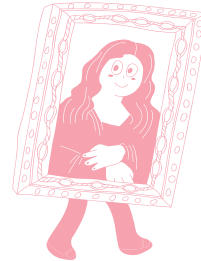
국내 주요 문화시설 최대 1300곳 참여



오늘은 네가 밥을 사라. 영화표는 내가 산다!

둘이서 영화를 볼 때면 우리는 밥을 사거나 영화 표를 사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표를 사는 쪽을 추천한다. 만원으로 2명이 영화를 보는 마법이 펼쳐질 테니!

영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
저녁 6~8시 8000원 → 5000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가볼 텐가?!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미(美)란 무엇인가. 모든 정답은 그 곳에 두고 왔으니… 후후… 한번 찾으러 가볼 텐가?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미술관
할인 및 무료



궁에서 온 그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아… 왕처럼 살고 싶다…….’ 그럴 땐 고궁에 들러 왕의 기분을 내보자! 왕에게 누가 입장료를 받겠는가! 이리 오너라! 주상 전하가 납신대!

문화재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문화가 있는 날’이란?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다함께 문화랑 놀자!

2014년 이번 봄, 문화가 있는 날은?
3월 26일, 4월 30일, 5월 28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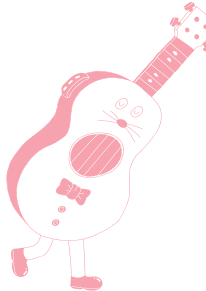
MEMASU 문화가 있는 날 검색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쓴다!

가업처럼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응원하는 팀이다. 자, 당신의 응원팀을 자녀에게 전해줄 기회가 왔다. 함께 가자! 경기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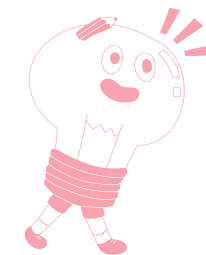
스포츠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자녀와 부모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람료 50%할인



봄따라 라마 라마~ ♪ 공연 보러 가보자~ ♪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분위기 있는 공연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겨보자. 내로라하는 주요 공연장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니. 좋아, 오늘 밤은 이걸로 정했다!

공연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공연 할인



당신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다!

집, 학교, 회사,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나만의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보자. 거리 공연, 프리마켓, 문화 회식, 재능 기부, 작은 운동회……!

문화가 있는 날, 24시간이 모자라~ ♪ ♪